

6.25의 잔상(殘像)과 낙산사의복원

The Korean war's Remnants & Restoration for Nagsansa Temple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한국농촌연구원고문,수필가

E-mail: hong37@empal.com

오리역 4번 출구를 나오니 하얀 벚꽃이 눈이 내리는 듯 흐드러지게 피어 눈꽃 바다를 이뤘다. 마치 눈밭을 걷는 느낌이었다. 속초로 여행을 떠나는 삼수회(三水會) 회원을 만나기 위해 분당 오리역엘 간 것이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4월이건만 천안함 침몰 사고로 46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터라 여행가는 마음 자체가 씁쓸한 감이 든다. 오늘의 흐린 날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한 4월의 잔인함을 노래한 “엘리엇(Eliot)의 황무지”를 기억하게 한다.

회원이 버스에 오르자 양평 신작로를 거쳐 흥천읍 며느리고개를 지나갔다.

이 고개는 옛날 한 노인이 며느리와 함께 친척집에서 받은 짚신선물을 당나귀에 신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고갯마루에 올라와 보니 매달았던 짚신꾸러미가 보이지 않자, 노인이 짚신을 찾으러가 한참 만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고 당나귀만 있었다. 시아버지를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 뒤로 시아버지가 있는 여자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여기를 며느리 고개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차는 어느덧 미시령을 넘어 속초에 들어섰다. 대지에는 탄생을 재촉하는 봄비도 촉촉이 내려 잠든 뿌리를 깨운다. 순두부가 유명하다는 “시골이모네” 식당으로 들어갔다. 음식은 들은 말대로 맛있고 푸짐했다. 오늘 일정은 친구가 경영하는 “술향기”라는 콘도식 모텔에 짐을 푸는 것이란다.

대포항 어시장에서 생선회감으로 도다리 송어 광어를 사왔다. 신의 선물이라는 생선회를 안주로 술 한 잔 하니 얼큰하게 취기가 온다.

연일 흐리고 비가 내린다. 2005년 4월에 산불로 원통보전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은 낙산사(洛山寺)로 갔다. 유서 깊었던 낙산사가 온통 복원하는 흔적뿐이고 고색창연하던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린 나무로 식목도 하고 새 재목으로 복원을 하곤 있지만 옛 모습을 찾으려면 오랜 세월이 흘러야겠다.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처음 돌아와서 대비진신(大悲眞身)이 해변의 굴속에 계시기 때문에 낙산(洛山)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대개 서역에 보탁낙가산(寶託洛伽山)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백화(小白華)하고 백의대사(白衣大士)의 진신이 머무는 곳이기에 그 이름을 빌려 신라 문무왕 11년 (67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암자의 전면이 초록빛 넓은 바다이고 후면이 산인 암자는 한국에서 세 곳 뿐이라고 한다. 낙산사의 홍연암, 부산 해동 용궁사, 남해 보리암 뿐으로 그 절경이 펍 아름답다.

홍연암은 역사적으로 낙산사의 창건의 모태가 된 암자이다. 의상대사가 입신도중 돌다리 위에 이상한 청초를 만나 쫓아가니 석굴 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대사는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석굴 앞 해중 반석 위에 나체로 정좌하여 7일 7야를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니 깊은 바다 속에 홍연이 솟아올랐다.

그 홍연 속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심중 소원을 간절하게 기원하니 만사가 뜻대로 성취되어 무상대도를 얻어 홍연암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

새벽의 목탁소리와 은은한 감을 주는 홍연암은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햇빛을 받아들여 더 한층 장엄하고도 화려한 광경을 이룬다. 암자 밑에 파여진 바위동굴사이로 조수물이 드나들며 부딪치는 파도 소리가 조용한 밤이면 산 넘어 대웅전 밑에까지 은은하게 들린다고 한다.

부인들이 아침부터 산나물 뜯으러 간다고 요란들 떨며 나가더니 아침상에는 갓 뜯어온 머위나물 무침이 반찬으로 올랐다. 살림에 익숙한 부인들에 솜씨 덕에 맛있는 식사를 끝냈다.

6.25 동족상잔의 뼈아픈 슬픔과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는 DMZ전방 통일전망대로 갔다. 10km전방에서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등록을 마쳤다.

남북출입관리사무소를 지나면 강원도에서 건설한 DMZ박물관(남북관광교류타운)이 나온다. 이곳은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무기 전리품들이 전시돼있어 6.25의 참상을 회상케 했다.

50년 전에 근무했던 12사단 소속 제36연대의 전황상황도 엿볼 수가 있었다. 그 참상을 영상으로 보니 당시에 눈물겹도록 고생했던 추억들이 머리를 스쳐간다. 속된말로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가면 언재 오나하는 한에

설인 말이 있는 인제 대암산 펀치볼(Punch Bowl) 아래에 최전방 12사단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1957년도 인가보다. 대학입학 시에 군복무단축원을 학생처에 제출하고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면 이 병역제도에 따라 1년 6월 근무하고 귀향한다. 귀향 후 복학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역명령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이제도에 따라 입대한자는 단기 복무하는 혜택 때문에 훈련소에서 전 방기 6주 교육만 받고 무조건 최전방 부대로 근무 배치를 받는다.

그 시절 군막사에 “빼치카”라고 하는 난방 시설이 있었다. 물로 연탄을 개어 불을 때어 실내 온도를 높여 내무생활을 하는 시설이었다. 그 해 겨울이 몹시 추웠다. 내무반 관리당번이 불 관리를 잘못해 내무반 온도가 영하 5도가 되었다. 모두들 고드름 신세가 되어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고생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6.25전쟁은 남과 북, 연합군과 공산군에서 각각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 괴뢰의 불법기습남침을 강조하고, 북한의 공식 기억은 정의의 완전한 조국해방전쟁이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남침에 대한 자유수호의 십자군전쟁이며, 중국에서는 위기에 조선을 조,중 연대의 실례로 기억하고 있다.

오후 2시에 통일전망대에 도착했다. 아주 쾌청한 날씨 덕분에 금강산 1만2천봉의 마지막 봉우리라는 낙타봉 너머 말무리반도가 손에 잡힐 듯하다.

155마일 휴전선의 동해안 시발점이자 비무

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철조망 뒤로 펼쳐져 있는 푸르른 바다가 눈부시다. 이게 60년 민족 분단의 실체란 말인가. 그 제서야 콧등이 찡해온다.

통일전망대에 들어서니 351고지 전투전적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전적 비는 동해안의 요충지인 월비산(459고지), 208고지, 351고지에서 개전 이래 피아공방전이 벌여졌고 뺏고 뺏기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종식 되었다. 351고지를 확보하기위하여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이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우리 부총리 등 고위관계자 16명을 살해했고, 1987년엔 민간 항공기를 공중 폭파시켜 115명을 몰살 시킨바있었다.

2008년엔 금강산 관광 갔던 한 여인이 저기 보이는 해변 가에서 인민군 초소병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은 이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의 빛이 없자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시켜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2010년에 또 북괴는 백령도 앞 바다에서 해군소속 천안함을 폭발침몰 시켜 46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켰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그 만행에 분함과 안타까움이 이 작은 가슴속에 범벅이 된다.

〈원고접수일 2010년 5월 5일〉